

국립대학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주목'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정기회의서 논의... 교육부 정보화전략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키로

국립대학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어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의 재해복구시스템은 데이터 백업 자료의 분산 보관에 한정돼 있고, 재해 발생 시 원격지 전산센터를 통한 시스템 및 데이터 복구와 운영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행정망에 연속적으로 전산장애 발생 마비 사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전산 마비 상황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재해 발생 시 국립대학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된 학생수 감소 및 등록금 동결로 개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국립대학 행·재정 통합 시스템인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도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어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에 이날 회의 회에서는 국립대학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센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통합 국립대학 재해복구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을 위한 교육부(대학재정과, KORUS 소관부서)에서 차세대 코러스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

획 수립 사업 추진 시 국립대학 정보시스템에 대한 재해복구체계 구축도 포함 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 외에도 교원비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건의, 2024국정감사(교육위)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공동 제안 안건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

회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교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회장교)·충남대·충북대 등이 국가거점국립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미래학교 운영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전북미래학교 운영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에는 2025년 전북미래학교로 선정된 유·초·중·고교 43곳의 교장과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초·기본학력 신장 △수업공개·나눔을 통한 수업혁신 △학교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자율과제 운영의 내실화 등 전북미래학교의 정책 방향을 안내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5년 전북미래학교 공모사업에 총 71개 유·초·중·고교가 응모,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43개교를 선정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변화된 전북미래학교 교육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원광보건대 대학통합추진위원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는 글로벌대학 30 선정에 따른 대학 통합 추진을 위한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지난 4일 원광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양교는 글로벌대학30 추진 과제 중 하나인 통합 원광대학교를 오는 2026년 3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교 총장 및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교원, 직원, 학생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27일 첫 회의에 이어 4일 2차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대학 통합 승인을 받기 위한 로드맵과 통합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특히 통합 이후의 학사구조개편 대 원칙과 교원인사제도, 직원인사제도, 학생보호 대책 등의 계획 및 공동 추진을 위한 '대학통합 합의서'에 양교 총장이 서명을 마쳤다. /익산=이재춘 기자

일본과 교류수업 · 해외연수 협력 강화한다

서거석 교육감, 9~13일 일본 방문... 도교도교육위, 관서지역 한국교육원 등과 협력 모색

서거석 교육감이 오는 9~13일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오른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을 비롯한 방문단은 도교도교육위원회, 관서지역(오사카·교토·나라) 한국교육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쿄무역관·ISCO(오기나생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수업 확대와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일본 공립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도교도립국제고등학교에서 IB 인증학교의 교육과

살펴보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서지역 한국교육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북 지역 중·고등학교와 일본 한국어 채택 학교 간 국제교류수업 활성화 및 협력을 강화하는 일정도 잡았다.

이어 도교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해 학생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수업 확대와 IB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하고, 일본 공립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도교도립국제고등학교에서 IB 인증학교의 교육과

정파 평가 방법 등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일본 방문을 통해 도교와 관서지역 교육 기관들과의 국제교육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국제교류수업과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예체능 계열 입시설명회 | 12일 고교 1~2학년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고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예체능 계열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예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대학별 전형 특성을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궁

금함을 해소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 강사로 참여하는 변다영?박진형 교사는 경기도교육청 진학리더교사로, 미술과 음악 분야에서 진학자료 제작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김상훈 교사는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수능전형팀장, 입시분석팀장으로 활동하며 대내 학생들의 체육 계열 입시에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들 강사는 각 계열 실기와 비실기

전형의 이해와 준비, 예체능 사범대 계열과 변화하는 입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원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예체능 계열은 학생들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누구보다 해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 사업화 유망기술 소개

전북대 산학협력단, 10일 코엑스서 '2024 국가전략기술 Tech Meetup Day' 행사 개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은 오는 10일 오후 1시 COEX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4 국가전략기술 Tech Meetup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3.0) 사업', 특허청의 '지식재산 수의 재투자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TMC)'의 일환으로 대학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수요기회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대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5개 분야 40여 개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재)전북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과학기술지주 등이 함께 참여해 투자 및 금융, R&D 사업, 산업단지 입주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특히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공급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암센터, 금오공과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천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 참가나 상담을 원하는 기업체는 9일 까지 온라인(https://techmeet.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사에서 소개된 기술 외에도 전북대학교 기술사업화지원플랫폼

(http://to.jnu.ac.kr/)에서 다양한 기술을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행사는 대학의 우수 기술과 기업 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테크노파크, 투자사 등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한 대학과 유관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대표적 산·학·관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대학-지역 소통의 장'

전북대 총학생회, '학문제' 오늘 개최

전북대학교 총학생회가 가을을 맞아 학생과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술, 문화, 체육 한마당 행사를 마련했다.

7일 전북대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소문동장 및 주차장 일원에서 열리는 '학문제' 축제는 각종 놀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학생 참여 부스와 연예인 공연, 아시안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먼저, 주간에 진행되는 부스 행사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콘셉트의 부스가 마련돼 어린 시절 놀이에서부터 중학교 시절의 사인 촬영, 고교 시절 수능 퀴즈 풀기,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에게 맞게 취업 메이크업과 증

명사진 촬영 등이 진행된다. 또한 축제의 백미인 아시안 행사에서는 다양한 푸드트럭이 마련, 학생과 지역민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특히 야간에는 무대행사가 축제의 흥을 더욱 돋운다. 대중의 뜨거운 인기를 받는 슈퍼비와 라이엇이 무대에 오른다.

김종석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학문제가 열려 매우 기쁘다"며 "대학의 축제를 지역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학생들은 축제에서의 다양한 행사와 경험을 통해 개인의 취미와 자기계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7일 성실관에 4IR 라운지를 개관했다. 지난 2023년 9월 창조관에 이어 두번째다.

전주비전대 두번째 4IR 라운지 문 열다

작년 9월 창조관에 이어 성실관에 개설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체험 공간 등 구성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7일 성실관에 4IR 라운지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4IR 라운지는 신산업 융복합 교과목 통합 운영 및 학생의 창의력 함양을 위한 팀프로젝트,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체험(드론 VR/AR) 공간 및 학생 진로지도 등을 위한 상담 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 구축된 Creative Factory, Co-Walking Space, Hy-Flex 강의실(4차산업 혁명 관련 기술 교육,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공간)과 연계해 학생들의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신기술 체험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식융합 스톱 교육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병훈 총장은 "4IR 라운지 구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역량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주비전대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기량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 2023년 9월 창조관에 이어, 성실관에 두 번째 4IR 라운지를 개설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3~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국제드론제전에서 '드론·로봇 체험존'을 운영했다.

남원 국제드론제전서 '드론·로봇 체험존' 운영

우석대 산학협력단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3~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국제드론제전에서 '드론·로봇 체험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남원시와 함께 추진 중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양 기관은 '드론 레저스포츠 중심 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미래 신산업인 드론특화(레저·스포츠·항공촬영)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자원 활용 등의 다양한 협

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분야를 지원·육성시켜 지역 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청년층 인구의 유입을 통한 안정적인 취·창업 지원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총괄 기획한 이창원(산학협력단) 교수는 "남원시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드론 분야에 대한 주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남원시가 드론 분야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